

高麗陶磁窯址의 研究

尹 龍 二

I

現存하는 高麗陶磁에 對한 깊은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高麗陶磁를 製作하였던 陶窯址에 對한 관심으로 나아가게 한다. 왜냐하면, 高麗陶磁는 그가 갖는 명성만큼, 그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물음들에 충분히 大답해 주기에 는 오늘도 고려도자에 대한 知見이 不足하기 때문이다. 文獻의 記錄, 發掘된 年代가 확실한 資料들이 不足한 오늘도 上 황에서 전국에 散 러있는 三八〇여 基에 달하는 高麗時代 陶窯址의 調査 研究는 高麗陶磁 의 起源과 發展에 關한 것으로 부터 高麗陶磁의 製作方法, 製作年代, 製作 의 전과 과정, 高麗陶磁의 變遷과 정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기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一九一四年에 있었던 全南 康津郡 大口面 一帶의 靑磁窯址의 發見을 계기로, 一九二九年 扶安一帶의 窯址群, 一九三七年의 高陽 元興里窯址 의 發見, 그리고 해방이후 一九六四年의 仁川 景西洞窯址의 發掘調査, 一九六五年 부터의 康津 沙堂里窯址의 發掘調査, 또한 一九六七年, 六八年 의 公州 新永里窯址와 龍仁 二東面 西里窯址의 發見, 一九七九年, 一九八三年까지의 康津 龍雲里窯址의 發掘調査, 一九八二年의 楊州 釜谷 里窯址 發見, 一九八三年의 高敞 龍溪里窯址의 發見과 發掘調査, 一九 八三年의 海南 珍山里址窯群의 發見, 一九八四年의 高興 雲雀里窯址 發 見, 一九八四年의 莞島 魚頭里 앞바다 出土 陶磁器, 一九八三年의 梨大 博物館所藏의 扶安柳川里窯高麗靑磁展과 一九八四年 龍仁西里窯址의 發 掘調査, 一九八五年 扶安牛東里, 神福里窯址 發見 등 二〇세기 전후반

에 걸쳐 새로운 高麗時代 窯址의 發見과 發掘調査 그리고 새로운 展示 는 우리에게 고려도자에 關해서 많은 새로운 知見을 알려 주었다.

전국에 分布되어 있는 三二개 지역, 三八〇여 개소에 달하는 高麗時代 陶窯址의 現在의 위치, 陶片의 特色, 窯의 性格, 다른 窯址와의 비교등 의 내용을 中心으로 分布現況을 알아보고, 다시 그를 바탕으로 高麗陶 磁의 起源과 發展, 靑磁문체, 一, 二, 一三世紀의 高麗陶磁, 高麗陶磁 의 소멸과 窯址의 變化에 關한 내용을 中心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II

現存하는 高麗陶磁의 窯址들을 地域別로 그 分布現況을 알아보면 다 음과 같다. (圖一)

A, 京畿道

一, 仁川市 北區 景西洞窯址①

西海에 연한 해변으로 낮은 구릉을 形成하고 있으며 이중山 一四六 번지 一帶의 완만한 경사의 바로 바다로 연해 있는 곳으로 여기 五, 六 개소로 추정할 수 있는 窯址가 있다. 현재는 京仁씨사이드크림의 골프 장으로 변해 있으며, 그중 한 곳을 一九六五, 六六年에 걸쳐 仁川市立 博物館이 國立博物館의 지도로 發掘調査된 곳으로 보호막사가 지어져 있다. (圖二)

이 가마에서 제작된 것이 소위 靑磁들로서 胎土에는 雜物이 많으며 거칠고, 釉藥은 綠褐色, 暗綠色, 褐色등으로 表面이 고르지 못하다. 器 形은 外反된 大鉢, 平底의 鉢形, 廣口瓶, 항아리, 鉢들이 주로 出土되 며, 햇무리굽이 變形된 小形의 盥도 出土된다. 굽다리에는 施釉되지 않 았고, 耐火土와 粘土가 섞인 받침으로 받쳐 구워졌다. 대체로 海南珍 山里窯址 出土의 例와 비슷하며, 경사진 둥근 도지가 多量으로 出土 되고 있었다. 發掘된 가마의 구조는 자연경사를 이용한 三, 四의 경

사를 지닌 登窯로 內部는 칸이 없는 통가마였다. 가마의 폭은 평균 一、二 m, 현존하는 가마의 길이는 七、三 m였다. 가마의 바닥은 三次의 補修, 改修가 있었고, 경사진 가마바닥을 도지미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二、高陽郡 元堂面 元興里窯址 (圖三)

元興里의 닭알부리 마을 入口에 널려 있으며, 漢江의 한 지류의 주변에 위치한다. 五〇×七〇 m 폭에 널려있는 이곳은 보존의 기술로 곳곳이 패여져 있으며,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一九三七年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野守健氏에 의해서였다.②

胎土는 비교적 정선된 灰色의 片들로 暗綠色, 綠褐色의 釉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거의 없으며, 드물게 陰刻線帶가 둘러 있고, 굽다리는 비교적 넓으며, 灰白色의 耐火土반침으로 얇게 받쳐져 있다.

外反된 대접, 口部가 말린鉢, 小形의 罍, 壺片들이 주로 出土되며, 무수한 원통형의 匣鉢片들과鉢形의 匣鉢片들, 낮은 접시모양의 匣鉢반침들과 가마벽의 벽돌모양片들이 수습되고 있다. 굽다리가 높고 外反된 것들과 낮고 넓직한 것, 햇무리굽에 가까운 직구된 罍들과 內底에 圓刻이 없는 대접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포개진 그릇들과 暗綠色의 斑點이 있는 陶片들이 연질의 土器鉢片들과 함께 出土된다. 거대한 구릉 위에 五、六개소로 추정되는 퇴적더미가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와 비슷한 가마群이 瑞山 梧沙里窯址, 鎮安 道通里窯址群으로 주목되고 있는 곳이다.

三、龍仁郡 二東面 西里窯址

西里 中德部落 山 五八番地에 위치하며 이와 비슷한 규모의 窯址가 앞산 너머의 上盤谷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圖四)

一九三〇년대에 李朝陶磁窯跡을 調査하였던 淺川伯教氏에 의해서 처음 조사되었으며 一九六〇年대에 鄭良謨先生에 의해 재조사되어 高麗初期 白磁窯址임이 확인되었고, 一九八四年 一月에 湖巖美術館에 의해 發掘調査된 곳이다. 주위는 高山地帶로서, 匣鉢등의 堆積物이 쌓인 「3」

形의 丘陵을 이루고 있고 크기는 幅 五〇 m × 길이 八〇 m × 높이 五 m에 달하고 있다.

窯의 구조는 경사 一三.〇의 登窯로 총길이 八、五 m, 幅 一、二 m였으며 바닥은 모래를 깔고 匣鉢로 수평을 유지하였고, 퇴적층의 「3」의 가운데 위치하였다. 窯外에도 고령토의 堆積이 있는 한칸 규모의 作業場과 瓦家の 건물이 우측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出土遺物들은 주로 白磁片들이었으며, 以外에도 土器, 靑磁片, 鐵繪白磁片, 匣鉢片, 窯道具, 瓦類등이 있었다. 胎土는 灰白色이며 釉色은 淡綠·淡靑色을 띤 白磁들로서 硬質과 軟質이 混在하였다. 器形으로는 罍類와鉢, 盒, 壺, 瓶, 注子 등으로 특히 햇무리굽 罍類들과 大形器가 많은 것이 주목되었으며 文樣은 대부분 無文이나 陰刻文도 약간 있었다.③ 匣鉢들은 얇고 정제된 것과 두껍고 투박한 것들로서 대부분 「M」形의 원통형이었으며, 구멍뚫린 匣鉢들과鉢形의 匣鉢도 있었다. 굽다리에 灰色의 耐火土로 얇게 받쳐 구운 것과 粘土가 섞인 것이 받쳐진 모습이었다. 이러한 모습의 가마 구조는 高敞 龍溪里窯址와 위치, 출토유물 등과 유사하여 주목되었다.

四、楊州郡 長興面 釜谷里窯址

一九八二年 四月 조사시에 發見된 곳으로 송추유원지에서 二 km 떨어진 북쪽마을인 釜谷里의 윗가마골마을에 위치한다. 비교적 소규모로서 出土되는 陶片은 햇무리굽罍과 접시들이며, M形의 원통형 匣鉢와 갑발받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胎土는 비교적 정선되었고, 文樣은 없으며, 釉色은 綠褐色을 띠고 있었다. 굽바닥에는 灰白色의 耐火土로 얇게 받쳐 구웠으며, 그 모습은 高陽 元堂里窯址의 出土片과 비슷하였다. 새로이 알려진 곳중의 하나이다.

以外에도 경기도에는 고려말 조선초의 窯址로서 추정되는 서울시 道峰區 牛耳洞窯址, 廣州郡 退村面 陶水里, 道馬里, 雙東里窯址등이 알려져 있다.

C、慶尙北道

一、月城郡 見谷面 來臺里窯址

一九七〇年代 정양모先生에 의해 發見된 곳이다. 來臺里的 곱바위마을 주위에 위치해 있으며 소규모의 모습이다.

出土遺物を 보면, 綠青色의 釉色을 띤 雜物이 많이 섞인 胎土의 대접, 접시로서 釉色이 고르지 않다. 곱바닥은 대체로 시유하지 않았으며, 粘土가 섞인 耐火土받침군으로 三~四개소에 받쳐 구워냈다. 특히 기벽이 얇고, 口部가 外反된 平底접시의 존재가 주목된다. 이와 비슷한 도편의窯址로 扶安 鎭西里一帶의窯址와 비슷하다.

以外에도 최근 이와여대박물관에 의해 조사중인 月城郡 川北面 花山里에 있는 白磁窯址와 麗末鮮初로 보이는 尙州 牟西里窯址 高靈 箕山里窯址등을 들 수 있다.

D、慶尙南道

一、釜山市 沙上面 德浦里窯址(圖五)

一九三〇年代 淺川伯教氏에 의해 조사 수집된 자료로서, 현재는 공장 이 들어서 전혀 그 흔적을 볼 수 없다.

暗綠色, 綠褐色의 釉色에 雜物이 섞인 거친 胎土의 접시, 대접, 잔 등이 있다. 특히 대접의 外面에 길은 綠色의 草文이 자유롭게 그려졌으며, 기벽은 얇고 內底에 陰刻線帶가 둘러진 것과, 口部가 外反된 例도 있다. 粘土가 섞인 비점받침을 받쳐 구운 예로서, 平底의 例도 있으며, 이와 비슷한 가마의 例로 扶安 鎭西里窯址 出土片을 들 수 있다.

以外에도 梁山郡 院洞面 花濟里에 비슷한 성격의窯址가 있으며, 麗末鮮初의窯址로는 山淸郡 長川里窯址, 泗川郡 龜岩里窯址 등을 들 수 있다.

E 全羅北道

一、高敞郡 雅山面 龍溪里窯址

一九八三年 六月, 雅山면 水沒地區發掘調査의 일환으로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에 의해 조사되어 보고된窯址이다. 雅山面 소재지에 서 北으로 舟津川을 따라 4 km 들어간 곳으로 산으로 둘러져 있는 盆地로서窯址로는, 四〇m×八〇m에 걸쳐 네개의 구름으로 쌓여 있고 퇴적층의 높이가 四m정도의 대규모로서 多量の M形 匣鉢片, 가마벽片和 함께 小量의 靑磁片, 土器片이出土된다.

靑磁窯는 堆積層의 구름진 곳에서 三基가 發見되었으며 그 중 一基는 길이가 一五, 二m, 가마폭은 〇, 九~一, 一m로서 六次에 걸쳐 가마바닥을 보수하였고, 최후의 가마바닥은 表土下 二〇cm이고 가마벽은 수차의 보수로 상대가 고르지 못하며, 굴뚝부분은 확실하지 않다. 出土靑磁는 햇무리굽의 전형적인 甞들과 곱이 높게 벌어진 陰刻蓮瓣文盒, 廣口瓶, 瓜形注子, 瓜形瓶, 長頸瓶, 扁壺, 大鉢, 托鉢, 접시, 대접, 小瓶, 주문문접시 등이며 文樣은 雲文, 蓮瓣文, 樹木文, 앵무문 등의 陰刻文樣이 發見된다.

灰白色의 잘 수비된 胎土 위에 淡靑色, 綠靑色을 띄우고 비교적 깔끔한 釉가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곱바닥에는 耐火土를 얇게 받쳐 燔造하였다. 土器片은 연질의 시루와 같은 호, 大鉢片이 섞여 出土되며, 匣鉢은 大·中·小形의 원통형으로 대체로 얇으며, 匣鉢의 측면과 바닥에 환기공의 구멍과 기호가 새겨졌으며, 납작한 대모양의 갑받침도 出土되고 있다. 또한 窯 주변에 진물지가 발견되었으며 草家의 作業場과 瓦家の 건물지가 발견되었는데, 瓦片中 「大平 壬戌」銘文의 出土로 一〇二二年頃을 알려 준다. ⑤

현존하는 퇴적층 가장 클 뿐만 아니라, 多樣한 모습의 이곳은 龍仁西里의窯址群과 그 규모와 出土陶片에 있어서 유사하며, 그 주변환경도 공통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窯址 앞산너머에 龍仁西里窯와 같

이 큰 규모의 비슷한 性格의 窯址가 發見되어 주목되었다. 그곳은 雅山 面盤岩里窯址로서 一九八四년에 새로이 조사된 곳이다. 龍溪里窯址 보다는 작으나 三개의 구릉으로 이루어진 곳이며, 出土되는 陶片과 匣鉢은 거의 同一하였다. 그래서 이곳 盤岩里와 龍溪里窯址에서 같은 시기에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제작해 나간 것이 아닌가 보여지며, 이와 같은 모습은 龍仁 西里의 窯址와도 비슷하였다.

즉 高敎과 龍仁의 窯는 위치나, 出土遺物、 규모로 보아 비슷하여, 서로의 關係를 알려주고 있으며, 다만 高敎은 靑磁中心으로, 龍仁은 白磁中心으로 그 제작의 특색을 살려간 것으로 보인다.

二、鎮安郡 聖壽面 道通里窯址(圖六)

一九三八年 野守健氏에 의해 알려진 곳으로, 道通里 中평부락 入口와 마을 內에 五~六개소 위치하고 있다.

쌓여있는 퇴적더미로 보아 규모가 큰 이곳은 高陽 元興里窯址、瑞山 梧沙里窯址와 그 규모, 出土陶片、匣鉢、가마벽片 등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綠褐色、暗綠色의 釉가 얇게 시유되었으며, 반점이 있다. 胎土는 정선되어 있으며 灰白色을 띄고 있고, 그릇 바닥에는 모두 灰白色의 耐火土반침을 얇게 하고 있다. 기형으로는 햇무리굽 罍을 中心으로 대접, 접시,鉢片이 주로 出土되는데, 햇무리굽 罍의 경우 굽폭이 넓고 대접의 경우 內底가 넓게 작여있다. 匣鉢은 원통형의 M形 匣鉢이 주로 되나,鉢形의 匣鉢도 있으며, 낮은 匣鉢반침도 발견되고, 匣鉢 측면에 구멍이 뚫린 환기공과, 벽돌모양의 가마벽片도 出土되고 있다. 綠褐色 褐色의 특이한 대접, 罍類, 匣鉢, 匣鉢臺 등이 出土되고 이곳 鎮安과 高陽, 瑞山과의 관계에 있어 共通點이 많다는 사실이 주목되는 점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三、扶安郡 保安面 柳川里窯址

一九二九年 조선통독부박물관에 의해서 조사된 곳으로 康津과 함께 高麗靑磁窯址의 二大 中心地인 곳이다. ⑥

柳川里 버드라미골 마을 一帶 主위 구릉에 四〇여개소의 窯址가 널리 있으며, 일제시대부터 심한 도굴로 인하여 파괴가 심하며, 그 외에도 거의 田畠으로 化하여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대체로 一~二세기 초부터 一~三세기에 걸친 각종의 高麗陶磁를 망라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뛰어난 窯址는 지정표석이 있는 주위로 靑磁窯址에서 드물게 出土되는 白磁、象嵌白磁、辰砂、鐵釉 등의 고려자기는 康津沙堂里보다 그량이 많으며多樣하다. 대체로 두가지의 모습으로 크게 區分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벽이 얇고, 釉가 얇게 시유된 淡靑綠色의 대접, 접시 등으로 粘土가 섞인 耐火土비집눈으로 받쳐구운 窯址들로서, 陰刻文、陽刻文、鐵繪靑磁 등이 平底접시와 함께 發見되는 곳과 다른 하나는 硃石반침으로 정교하게 구운 翡色釉의 罍, 접시, 瓶, 注子, 托盞 등 다양한 器皿이 鐵繪、辰砂、象嵌 등의 手法로 정교하게 제작된 窯址들이 함께 共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扶安 鎮西里一帶의 窯址들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것이 조선시대 中心窯와 주변窯의 關係를 보여주는 廣州一帶의 官窯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를, 어떤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함께 共存한다는 점이 주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扶安 柳川里 一~二號窯址를 中心으로 해서 出土된 陶片들을 보면, 器形에 있어 透刻의 欸、臺、多様な 陶板들은 오직 이곳에서만 出土된 것들이고, 그의 梅瓶、梅瓶뚜껑、四耳壺、盒、접시、상자、注子、꽃병、표형병、托盞、盞들、대접、缸、벼개、타구、花瓶、酒瓶、「照淸」「孝文」「義藏」銘 등이 있는 靑磁片들이 있다. 陰刻、陽刻、透刻、象形、象嵌、辰砂、堆花、鐵繪 등의 靑磁、白磁 위에 화려하게 시문된 것으로 一~二세기 후반으로 부터 一~三세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들이라 할 수 있다.

四、扶安郡 鎮西面 鎮西里窯址(圖七)

一九二九年 柳川里窯址에 함께 野守健氏 등에 의해 조사되어 알려진 扶安의 柳川里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三~五개소의 요지가 알려져 있다. 이곳 窯址들은 蓮洞마을, 新, 舊鵝마을 주위에 널리 있으며 모두 해변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이 많아서 파괴가 심하다.

대체로 無文의 靑磁窯址群과 象嵌靑磁窯址群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無文의 靑磁窯址群은 柳川里와 비슷하게 기벽이 얇고, 대접, 접시의 경우 口部가 外反되었으며, 굽이 작고 낮다. 粘土가 섞인 耐火土 비침눈을 받쳐 포개 구운 예가 있으며, 內側面에 음자線帶가 있기도 하고, 平底 접사와 함께 鐵繪의 靑磁도 함께 出土되는 共通點이 있으며, 匣鉢은 使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드물게, 경사진 도지미를 使用한 例도 있어, 仁川景西洞窯址나, 海南珍山里窯址등과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 그룹의 象嵌靑磁窯址들은 柳川里보다는 정교하지 못하나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종래 이곳 鎭西里窯址들은 一三~一四世紀의 窯로서 추정해 왔는데, 이들이 一~二三世紀로서 올려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점이다.

五、扶安郡 保安面 牛東里窯址

一九八四年에 發見 조사된 곳으로 一〇여기의 窯址가 牛東里 우적동 마을 뒷산 구릉에 널려있는 곳이다. 이들 요지들은 硬質 灰靑色의 高麗土器들과 함께 黑褐色의 釉가 施釉된 窯와 綠褐色의 釉가 고르지 않은 靑磁들과 함께 같이 共存한다는 점이다. 새로이 발견된 것도 그렇지만, 土器, 陶器 등과 함께 共存한다는 점이 주목될 사실이었다.

平底의 접시를 포함하여 外反된 口部의 대접, 굽다리의 폭이 고르지 않은 대접들, 비침눈받침이 커지고, 廣口의 각이진 瓶, 壺들이 出土되고 있다. 또한 경사진 등근 도지미도 出土되고 있으며 기벽이 얇은 점이 주목되고 있다. 黑褐釉 陶器 역시 廣口의 각이진 平底의 瓶과 壺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土器 역시 硬質의 口部가 角이진 壺片이 發見되고 있다. 아마도 이점이 扶安窯址群 중에서 새로이 주목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以外에도 扶安郡 保安面 新福里에서 새로이 靑磁窯址가 發見되었으며, 麗末鮮初의 鎭安 求臣里窯址, 扶安 牛東里窯址 등이 알려져 있다.

扶安의 경우 이처럼 牛東里와 新福里에서 窯址가 發見되고, 柳川里와 鎭西里窯의 두 그룹으로 分類되고 그 시기 역시 一三~一四세기보다, 一

一~一三세기로 올려져 보인다는 점과 海岸가에 위치한 鎭西里와 海南珍山里窯址의 상대와 비슷한 점도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F、全羅南道

一、康津郡 大口面 龍雲里窯址

一九一四年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알려진 이후 高麗陶磁研究의 中心이 되고 있는 곳이다. ⑦ 龍雲里의 東北쪽 산 계곡에 있는 淨水寺로부터 雲谷마을, 巷洞마을, 龍門부락 일대에 六〇여개소에 가까운 靑磁, 土器窯址가 널려 있다. 一九七九~八三年 龍雲里 一帶에 저수지를 축조하게 되어 一〇여개소의 窯址가 수몰하였으며, 그중 3개소가 國立中央博物館에 의해 發掘調査된 곳이다. 이곳의 窯들은 대체로 규모가 小形이며, 주로 햇무리굽꼴을 포함하는 窯址群이 대부분이며, 그 窯址들 사이로 土器窯址가 五~六개소 있고 그다음 햇무리굽꼴의 변형이 보이는 窯址들이 보이며, 약간의 象嵌靑磁窯址들도 있다. 한국 햇무리굽꼴의 가장 전형적인 綠靑色의 釉가 두껍게 시유된 小形의 甌들과 그와 같은 窯址 出土片을 通해 靑磁의 起源을 찾고자 노력한 관점도 있었다. 햇무리굽꼴의 窯와 그의 變形으로 보이는 窯의 두 그룹이 이곳 窯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두 그룹의 特色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圖八)

햇무리굽꼴이 出土되고 窯는 三五여개소에 이르며, M形의 匣鉢와 匣鉢받침이 堆積의 주류를 이루며, 匣의 모습은 기벽이 얇고, 表面에 자연釉가 시유된 예가 많으며, 側面에 二〇여개에 달하는 각종의 기호와 환기공이 있어 주목된다. ⑧ 기호로는 「×」 「」 「」 등이 가장 많으며, 없어서 使用한 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 窯址에서도 반드시 햇무리굽꼴이 발견되는 점이다. 햇무리굽꼴과 匣鉢은 特色 중의 하나이며, 이들 靑磁는 모두 灰白色의 耐火土받침으로 얇게 반쳐져 구웠으며, 햇무리굽꼴의 경우 포개어 굽지 않았다. 器形으로도 廣口瓶, 전접시, 굽높은

대접, 陰刻, 陽刻의 蓮瓣文盃, 몸체가 큰 瓶, 廣口의 壺, 外反된 접시 등이 出土되며, 暗綠色, 또는 淡靑綠色의 釉가 두껍게 시유되었고 胎土는 灰色으로 잘 수비되어 있다. 이들 요지 중 드물게 內側面에 가는 陰刻線의 菊唐草文, 草花文 등이 發見되고 있으나 매우 드물며, 鐵繪나 堆花技法 등은 전혀 出土되지 않고 있다.

두번째인 햇무리굽盥의 變形이며, 그 다음시기의 窯로 추정되고 곳의 특징은 匣鉢이 두꺼워지고, 조금씩 커지며, 환기공 등의 기호가 사라지고 있는 점이다. 햇무리굽盥은 작아지고, 굽다리가 작아졌으며, 전체적으로 굽이 작아지고, 灰白色의 耐火土발착자국이 조금씩 커진다는 점이다. 기벽이 얇아지고, 釉도 얇게 시유되었으며, 陰刻의 文樣과 陽刻花文이 시문된 例가 많아지고, 鐵繪技法과 堆花技法의 靑磁가 나타나며, 특히 平底의 小形접시가 함께 發見된다는 점이다.

햇무리굽盥과 平底접시의 이 두가지 특징의 窯址를 中心으로 灰黑色의 土器窯址들이 發見되며, 기벽은 얇고, 平底이며, 口部는 廣口의 角이진 壺, 瓶들이 주로 出土되는 점이 주목되며, 그의 三개소의 十三세기 후반경의 象嵌靑磁窯址들이 發見되고 있다.

二、康津郡 大口面 桂栗里窯址

桂峙마을, 靑龍부락, 栗村부락, 卯山부락을 中心으로 하는 桂栗里一帶에 四〇여개소의 窯址가 널려 있으며, 七개소의 햇무리굽盥과 平底접시類의 窯 그리고 象嵌靑磁의 十三~十四世紀의 三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圖九)

햇무리굽盥의 窯는 龍雲里와 비슷하나 적어지고, 平底접시의 窯들이 많아지며, 계속해서 象嵌靑磁의 窯들이 대를 잇고 있다. 따라서 햇무리굽盥의 窯보다는 그 다음 시기인 平底접시의 窯로 볼 수 있는 그룹에서 陰刻, 陽刻의 文樣과 堆花, 鐵繪技法이 시문된 기벽이 얇고, 釉가 얇게 시유된 일단의 靑磁窯가 제올리의 中心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석반침을 특징으로 하고 절구모양의 도지미와 두꺼워진 匣鉢로 대표되는 十三~十四세기의 象嵌靑磁窯들도 드문 드문 널려 있어

곳저곳으로 가마가 옮겨 다녔음을 말해주고 있다.

三、康津面 大口面 沙堂里窯址

康津靑磁의 核心이 있고 곳으로 一九一四년 발견된 이래 가장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곳이 었다. 一九六五~七〇년에 걸쳐 靑磁瓦로有名な 沙堂里窯가 國立博物館에 의해 發掘調査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⑨

이곳 사당리는 龍門川 下流의 비교적 넓은 들을 지나고 있으며 堂前마을, 尾山부락, 白沙부락 일대에 四〇여개소의 窯址가 널려있다. 대대로 堂前부락 윗쪽 구릉에 햇무리굽盥을 제작했던 가마가 五~六개소 널려있으며, 平底접시類의 가마 역시 七~八개소에 이른다. 이곳의 특징은 순청자, 상감청자를 제작한 窯들이 당전부락, 미산부락 그리고 수동리의 벌판에 널려 있으며, 대체로 十二세기로부터 十四세기에 이르기까지의 象嵌技法의 靑磁窯가 中心을 이루며 널려있다.

순청자 및 상감청자의 十二~十三세기의 窯址의 特色은 匣鉢이 매우 두껍고 커지며, 벽돌색을 이루고, 환기공이나 기호가 없으며, 內面에 釉가 인위적으로 시유된 점이다. 그리고 窯道具로서 도지미와, 拾 등이 절구모양, 구화빵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靑磁의 굽다리에 硃石반침자국이 남아있는 특색을 이루며, 퇴적층이 소규모인 점이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靑磁의 釉色은 翡色釉로 아름답고, 多様な 技法의 靑磁제작과 함께, 多様な 器形의 고려도자가 제작되는 점이다. 특히 象嵌靑磁의 유행은 보편적이며, 점차 청자색도 灰靑色으로 변화하고 文樣은 도식화되고 있다. (圖十)

十四세기로 추정되는 靑磁窯址로 부더의 특색은 도지미가 커져 절구형, 버개모양이며, 굽은 모래반침을 주로 쓰고, 대접접시의 경우 기벽이 두꺼워지고, 口部는 내만되어가며, 문양은 도식화되어 가고 유색은 시멘트색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十二~十三세기 모습의 象嵌靑磁와 十四세기의 象嵌靑磁에는 공통점이 보여지며, 다른 변화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十二~十四세기의 고려도자의 中心이 이곳 沙堂里로서 扶安柳川里와 함께 고려도자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以外에 水洞里에도 四개소의 十三~十四세기의 窯址가 존재한다.

四、康津郡 七良面 三興里窯址

一九一四年 康津 大口面一帶의 窯址가 함께 조사되어 알려진 곳으로 삼흥리 南山부락 주위에 七개소의 窯址가 널리 있다. 해주리굽샘의 靑磁 窯三개소, 土器 및 흑갈유도기 四개소로 區分되어 주목되고 있다. 해주리굽샘의 가마는 龍雲里의 것과 同一하며, 小규모인 점이요, 匣鉢에 나있는 기호역시 비슷하다. 土器窯址 역시 용운리의 것과 비슷하며, 廣口의 壺, 鉢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특히 삼흥저수지 주변의 흑갈유 의 靑靑磁계통의 壺, 鉢片들이 있는 窯址가 있어서로의 상관 관계가 주목된다.

대체로 靑磁는 淡靑色의 靑磁釉의 盞을 비롯한 접시들로 기호가 있고 匣鉢과 함께 出土되고 있으며 문양이 거의 없고, 얇은 耐火土 반침으로 받쳐져 구운 점들이다. (圖一一)

이곳 외에도 七良面 猪頭里에도 靑靑磁窯址가 有存한다.

五、高興郡 豆原面 雲岱里窯址

一九八四年 二月, 梨大博物館과의 답사시에 發見한 것으로 雲岱里의 石村마을 뒷 구릉에 1개소가 널리 있다.

해주리굽샘을 中心으로 대접, 접시片들이 수많은 匣鉢片과 함께 出土되며, 특히 黑釉의 廣口瓶, 壺片이 함께 發見되고 있어 주목되었다.

산 언덕의 경사진 곳에 널리 있는 이 窯址의 규모는 작은편이었고, 黑釉片이 함께 出土되고 있었다. 해주리굽샘의 경우 內底에 圓刻이 보이고 胎土는 中國 越州窯産의 盞과 內底가 비슷하였으며, 굽다리도 넓고, 폭이 컸다. 胎土는 정선되어 있었고, 靑磁釉역시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匣鉢도 康津産과 同一한 것이 있다.

아직까지 그 전모에 대하여 확실히 알 수 없으나, 中國形과 닮은 해주리굽샘이 발견된다는 점과 黑釉의 존재였다.

이처럼 해주리굽 靑磁가 마터에서 黑釉의 瓶, 壺片이 發見된다는 것도 黑釉의 시작이 해주리굽샘과 같이 일찍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六、海南郡 山二面 珍山里窯址

一九八三年 四月, 중학생의 신고와, 光州의 조기정씨의 제보로 알려진 중요한 窯址群으로 그 주위의 草松里, 九星里에 산재한 窯址들이 처음 조사시에는 三〇여개소였으나, 조기정씨의 정밀조사로 一〇〇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대규모의 窯址群이다. 珍山里 해안가를 中心으로 群集을 이루고 있는 이들 窯址들은 거의 共通點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로 바다를 향한 소규모이며, 鐵繪를 주로 하여 鐵彩, 堆花技 法과 陰刻, 陽刻手法의 靑磁類가 주로 발견되고 있다. (圖一二)

粗雜한 胎土에 靑靑色, 暗靑色, 靑褐色을 띠는 거친 釉가 얇게 施釉된 그릇들로 기벽이 얇고 가벼우며, 釉面에 반점이 있어 고르지 않다. 口部가 外反되고 굽다리는 대마디굽을 이루는 대접, 접시, 廣口瓶, 大盤, 扁壺, 注子 등의 器形과 文樣은 거의 無文을 이루고 있고 굽다리는 粘土가 섞인 耐火土반침으로 포개어 구웠다. 경사진 등근 도지미와 匣鉢의 존재로 登窯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平底접시가 적지 않게 出土된다는 점과, 대접, 접시의 경우 口部가 넓게 外反되고 동체가 곡선을 이루며 굽다리가 일정치 않고 耐火土반침과 粘土반침을 혼용한 점, 그리고 해주리굽샘이 변형되어 조그마해지고, 굽다리가 좁고 낮아진 小形의 盞이 함께 出土되며, 경사진 등근 도지미가 존재하는 점은 이곳이 仁川 景西洞窯址와 扶安 鎮西里窯址 등과 비슷한 性格의 窯였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圖一三)

특히 鐵繪, 鐵彩, 堆花技法의 粗質靑磁가 많은 점이 가장 주목할 점이며, 아울러 莞島海底 出土의 三萬여점에 달하는 高麗陶磁들이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졌음이 밝혀져, 珍山里, 草松里 해안가에 있는 一〇〇여개소의 窯址와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곳이다.

以外에도 光州 忠孝洞窯址, 光山郡 雲水里窯址 등이 麗末鮮初의 窯址

로 알려졌다.

G, 기타

一、平南 江西郡 沓次面 二里窯址¹¹⁾

一九三七年에 조사된 요지로 수많은 匣鉢破片의 堆積이 八개소에 달하는 대구포의 것으로 無文靑磁를 주로 만들었으며, 드물게 花文, 鳳文 등이 발견되고 있다. 罍, 盃, 盤, 注子 등이 만들어졌으며, 드물게 罍우리굽罍도 出土된다.

高陽, 瑞山의 窯址와 같은 성격의 窯址로 주목되는 곳이다.

二、黃南 松禾郡 雲遊面 周村窯址

一九二九年에 조사된 곳으로, 無文, 陰刻, 陽刻의 蓮瓣文, 牡丹文이 發見되며, 綠褐色을 띠는 罍, 盃, 注子가 주로 出土된다. 모래반침으로 반쳐 구웠으며, 굽다리는 시유하지 않았다.

그 특징으로 보아 公州 新永里窯址와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III

全國에 分布된 총 三二개지역 三八〇여개소의 高麗時代 陶窯址를 中心으로 高麗陶磁의 起源에 관한것, 變遷에 따른 變化, 種類에 따른 몇 가지 문제들을 고찰해 보자.

A, 高麗陶磁의 起源에 관하여

一、高麗陶磁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관한 문제는 오랜 관심의 대상으로 현재까지도 확실하지 못한 상태이다.

文獻의 記錄도 없을 뿐만 아니라, 資料 역시 남아있는 예가 극소하다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代表的인 高麗靑磁의 起源에 관한 說로는 九世紀 前半에 發生하였다는 吉岡完祐氏¹²⁾와 鄭良謨氏의 說¹³⁾과 九世紀末 一〇世紀初에

靑磁로 부터 시작되었다는 故최순우氏의 說,¹⁴⁾ 一〇世紀前半頃에 發生하였다는 故三上次男氏의 說,¹⁵⁾ 최근 一〇世紀後半說을 제기한 尹龍二의 說¹⁶⁾ 등이 있다. 吉岡完祐, 鄭良謨, 三上次男, 尹龍二의 說의 根本이 되는 資料로 罍우리굽罍을 들고 있으며, 靑靑磁發生說은 崔淳雨氏가 오래전 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 있다.

(一) 靑靑磁가 靑磁의 선구로서 나타났다고 하는 관점은 一九六四年에 있었던 仁川 景西洞窯址의 調査 결과 제기되었던 說로 土器에서 좋은 靑磁로 가는 과도기의 粗雜한 靑磁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 發見된 海南珍山里一帶의 窯址群과 莞島海底出土의 三〇六七三點의 調査결과 靑靑磁가 가장 최초의 靑磁가 아니라, 一世紀後半頃 海岸가에서 제작된 地方用의 粗質靑磁의 하나로서, 최초의 靑磁는 罍우리굽罍을 포함하는 일단의 靑磁에서 그 發生을 찾는 것이 옳지 않을 까 라는 점을 문제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다시말해 仁川 景西洞窯址로 代表되는 靑靑磁의 제작시기는, 그와 비슷한 海南珍山里, 扶安 鎭西里窯址와 함께 平底盃시 代表되는 시기의 窯로 바라보고자 했으며, 그 시기는 一世紀後半에서 二世紀에 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⁷⁾

(二) 罍우리굽罍이 언제부터 시작되어 언제까지 만들어졌느냐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대체로 無文의 中國産 越州窯의 罍우리굽罍과 굽다리가 비슷한점, 기형이 비슷한 점을 들어 그 시기를 설정하고자 한 점이 있었다. 罍우리굽罍은 茶罍의 하나로 禪宗의 변화에 따른 飲茶의 요청에 따라 처음에는 中國産 罍우리굽罍을 使用하였을 것이고 차츰 國産으로 만들게 되었을 것이며, 飲茶 풍습에 따라 오랫동안 使用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國産의 罍우리굽罍의 九世紀 및 一〇世紀의 年代있는 자료는 현재 없으며, 九九三年銘의 항아리 그리고 高敞 龍溪里窯址에서 平瓦에 있는 「大平壬戌」銘의 존재로 一〇二二年을 알려주고 있는 것 뿐이다. 따라서 九世紀로 보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 시기설정에 있어서 너무 앞서서 추정되어온

감이 짙다. 특히 九世紀說에 있어서는 九世紀頃의 統一新羅土器骨壺, 그의 土器들의 器形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그 햇무리굽甕과 함께 만들어진 靑磁대접, 접시, 瓶 등의 伴出遺物들도 함께 비교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햇무리 굽甕의 제작시기 및 사용시기가 길었던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⑮ 햇무리굽甕을 제작한 窯들이 一〇世紀後半頃으로부터 一世紀後半頃까지로 設定하고자 하며 그 근거로 高敞 龍溪里窯址出土片과 康津 龍雲里 九號窯址에서 햇무리굽甕과 함께 제작되어 出土된 靑磁陰刻菊草文甕들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三) 햇무리굽甕을 제작한 가마들은 몇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高敞 龍溪里와 龍仁 西里窯址처럼 퇴적층이 대규모이고 전형적인 햇무리굽甕이 만들어 진곳과 두째는 康津 龍雲里, 桂栗里, 沙堂里, 三興里, 高興 雲岱里窯址처럼 퇴적층이 소규모이나 많이 널려있으며 가장 전형적인甕이 만들어진 곳, 셋째로 대규모의 퇴적층을 이루고 있으나, 햇무리굽甕이 드물고, 폭이 넓으며, 釉色과 匣鉢들이 차이가 있는 瑞山 梧沙里, 高陽 元興里, 鎭安 道通里, 江西二里, 楊州 釜谷里窯址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세 그룹의 窯址들의 비교검토는 靑磁起源과 發展에 관한 보다 깊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주목되는 점이다. 그리고 淳化四年銘(九九三)壺 역시 이 세 그룹의 窯址 中 셋째 그룹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B. 綠靑磁와 平底접시窯

一, 햇무리굽甕産의 窯와는 다른 變化를 보이는 窯들로서 綠靑磁類와 平底접시 및 鐵繪靑磁, 堆花靑磁, 陰刻, 陽刻의 靑磁를 伴出하는 窯를 들 수 있다.

仁川 景西洞, 保寧 沙湖里, 扶安 牛東里, 鎭西里, 海南 珍山里, 草松里, 康津 桂栗里, 龍雲里, 釜山 德浦里, 月城 來台里窯址, 公州 新永里, 大德 城北里, 松禾 周村窯址 등을 들 수 있다.

(二) 이들 窯址들 중 仁川 景西洞과 비슷한 例로 扶安 鎭西里, 海南 珍山里, 釜山 德浦里窯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중 代表的인 곳이 海南 珍山里一帶의 窯址群이다. 모두 바닷가에 위치한 점과 경사진 등근도 지미가 있고, 粗質의 靑磁를 제작하였으며, 平底접시類와 함께, 粘土가 섞인 耐火土를 비집근으로 하여 두껍게 받쳐 굽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굽 주위를 시유하지 않는 例도 많다. 특히 康津 桂栗里와 龍雲里, 扶安 鎭西里窯址 등은 良質의 胎土를 使用하고 있으며, 대체로 綠靑色의 釉가 얇게 시유되고, 굽다리는 작아지며, 耐火土는 키지고, 기벽은 얇아 진다. 口部는 外反된 例가 대부분이며, 그릇 內側面에 가는 陰刻의 菊唐草文, 牡丹文 등과 陽刻의 文樣이 시문되며, 匣鉢의 경우 두껍고 키지고 있다. 이러한 窯에서 鐵粉의 草花文, 菊花文, 牡丹文 그리고 堆花의 花文 등이 시문되며, 기형이 多樣해져 간다.

또한 公州 新永里, 大德 城北里, 松禾 周村窯址의 경우 山속에 위치하며 陰刻, 陽刻의 蓮瓣文, 牡丹文이 시문된 綠靑色의 靑磁를 제작한 가마가 바닷가에 반해서 제작되고 있었다는 점이며, 이들 요지에서 굽다리가 작고 시유안된 例를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점이다.

(三) 이들 綠靑磁類의 窯址와 그 속에서 共通으로 發見되고 있는 平底접시 등의 이 窯址들의 제작시기는 언제부터였을까. 아마도 햇무리 굽甕産의 窯址들과 겹치면서 발전되어 가고 있던 시기로 추정되고, 翡色技法의 靑磁가 주로 제작되는 대체로 一世紀後半으로부터 二世紀前半에 이르는 시기로 추정되는 것이다. ⑯

四, 一〇世紀後半에서 一二世紀前半에 걸치는 窯의 構造는 경사진 구를 利用하여 一.二.~一.五. 정도의 경사로 칸이 없는 통가마를 축조하였다. 地面을 二〇.~三〇cm 정도로 파고 양옆에 돌과 雜石, 粘土를 使用하여 가마벽을 올렸으며, 가마의 길이는 一〇~一五m 內外, 가마폭은 一m~二m, 가마천장의 높이는 一m 내외였다. 가마바닥에는 모래를 깔았고, 경사진 바닥을 匣鉢로 얹어 놓거나 직경 一〇~一五cm 내외의 경사진 도지미를 사용하였다. 굴뚝은 가마 윗쪽에 설치하였으며, 가마는

자주 보수하여야 했다.

이들 가마에서 발견되는 匣鉢은 圓筒形으로 없어서 使用하였으며, 기벽이 얇고 自然釉가 쇠워진 例가 많으며, 匣鉢중에는 측면에 환기공의 구멍이 뚫려있기도 하고 「※」 「」 등의 기호가 있기도 해서 이 시기의 窯址는 匣鉢만 보아도 알 수 있고, 그 특징이 비슷하다. 그리고 굴절질 등을 가루로 만들어 耐火土로 使用하기도 하며, 대체로 얇게 받쳐 구운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㉑

이러한 가마의 구조는 一二、一三世紀의 가마로 그대로 이어지며, 경사진 가마바닥을 匣鉢을 놓아 수평을 유지하거나 도지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짐차 匣鉢은 기벽이 두꺼워지고 커지고 있으며 內面에는 靑磁釉를 시유하여 재가 멀어 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리고 耐火粘土로 만든 등근 臺 위에 三~六個의 硃石을 박은 도지미를 만들어 使用하였고 큰 器形의 경우에는 粘土가 섞인 耐火土 받침을 굵게 해서 받친 例들이 많이 나타나 시기에 따른 도자제작의 차이를 알 수 있다.

C. 一二、一三世紀의 陶磁와 窯

(一) 一二世紀前半으로 부터 一四世紀前半에 이르기 까지 陶磁製作의 中心地는 扶安과 康津一帶의 窯로 집약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一二世紀前半경을 통해 康津과 扶安窯 外에는 海南, 高敞, 公州, 龍仁, 仁川, 釜山 등의 대부분의 窯가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高麗의 中央集權化 과정에서 대표적인 康津과 扶安의 窯만을 집중적으로 키우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一二世紀後半 이후의 器皿樣式을 보여 주는 窯址로는 이 두 곳 外에는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發見된바 없기 때문이다. ㉒

따라서 一二世紀前半頃の 康津과 扶安窯는 代表的인 高麗陶磁製作의 中心地로서 一四世紀에 이르기까지 서로 경쟁해 가면서 제작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二) 康津과 扶安에서 만들어진 陶磁들은 漕運을 통해 배로 開京에 올

려져 高麗王室과 貴族 所用의 陶磁로 使用되었으며, 이들 窯址들은 모두 漕倉이 있는 바닷가가 가까이 위치하여 陶土와 물과 나무가 무성한 곳을 背景으로 삼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高麗時代 窯들이 바닷가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三) 高麗陶磁의 最盛期는 仁宗, 毅宗年間인 一二世紀중엽으로 보이며, 특히 毅宗年間(一一四七~一一七〇A.D.)에 陰刻, 陽刻, 透刻, 彫刻의 靑磁를, 鐵繪靑磁, 辰砂靑磁, 象嵌白磁 등 多彩로운 도자기와 화려하게 제작되었던 시기였으며, 一二世紀後半의 明宗으로부터 一三世紀前半의 高宗年間에 이르기까지, 象嵌靑磁의 發達이 뛰어났음을 康津沙堂里와 扶安 柳川里窯 出土遺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梨大博物館에 의해 수집된 扶安 柳川里窯產 고려도자는 고려도자가 얼마나 다양했으며 아름다운지를 陶片을 통해 알 수 있다. 각종 透刻 嗽과 臺片들 托蓋, 陰, 陽刻의 대접, 瓶, 梅瓶, 접시片, 象嵌技法으로 완성된 陶板, 梅瓶, 酒瓶, 托蓋, 注子, 罍, 花瓶, 접시 등 多様하며 그의 辰砂彩, 鐵彩, 鐵畫, 堆花 등이 施文된 例와 白磁, 陰, 陽刻白磁, 象嵌白磁, 黑磁 등이 다채롭게 出土되었다. 文樣의 경우도 雲鶴文, 菊花文, 牡丹文, 蒲柳水禽文, 荔枝文, 雲龍文, 人物文 등 다양하였으며 釉色은 綠色이 짙은 靑磁釉와 透明한 靑磁釉가 함께 주류를 이루고 있다. ㉓ 이처럼 器形과 文樣에서 中國의인 요소가 사라지고 高麗의인 器形과 文樣의 世界가 확대되고 전개되어 가는 것이 一二세기 후반에서 一三世紀고려도자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四) 高麗陶磁는 瓷器所에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康津 大口面과 扶安 柳川里에 所가 있었고, 그 주위에 土城이 둘러졌던 흔적이 남아 있다. 高麗王室 및 官廳이 필요로 하는 도자기의 需要에 따라 瓷器所의 所民이 주축이 되어 靑磁를 비롯한 陶磁器를 제작하고, 그 완성품을 所의 官리가 別貢으로서 공급하는 체계로 운영되었으며, ㉔ 다른 기술 집단인 鐵所, 銀所, 紙所, 墨所 등과 함께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現存하는 靑磁 硯에 보이는 「孝文」 「孝久刻」 「孝光」 「照清造」 「崔吉會造」 등의 銘文을 通해 이들 所에서 靑磁를 제작자인 陶工들의 이름을로서 주목되고 있다.

D、高麗陶磁의 소멸과 窯址

高麗後期の 權門世族에 대신하여 新興士大夫 勢力과 왜구, 흉진적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급성장한 新進武人 勢力을 주축으로 지배세력이 바뀌면서, 外的으로 왜구와 흉진적의 침입으로 內外面에 혼란과 불안정이 지속된 시기를 背景으로 고려도자의 變化가 보여진다.

특히 四〇여년간에 걸친 왜구들의 극심한 침략으로 해안가 五〇리 內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으로 이 때문에 海上의 漕運이 끊겨 정부는 재정이 곤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닷가의 농민들은 계속된 약탈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新興사대부들의 요구에 따라 陶磁에 있어 實生活에 널리 쓰여질 수 있도록 튼튼하고 實用的인 그릇의 多量生産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新興사대부들은 性理學을 그들의 生活이념으로 삼으면서 檢소하고 실용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되며, 그들은 전국적인 세력의 分布를 보이고 있었다. 유기 대신 沙器, 木器를 專用하라는 高麗史의 記錄처럼¹³ 生活用的 實用的인 陶磁器를 多量으로 生産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이들의 관점이 때마침 왜구들의 침략으로 해안가에서 사람이 살 수 없고 漕運을 通해 開京에 운반되던 稅船이 왜구들의 습격을 받아 조운이 막히므로 陸路를 通한 陸運이 요청되던 때였다.¹⁴ 康津, 扶安의 海岸가에 위치해 있던 이 시기의 가마들은 왜구들의 습격으로 파괴되고 그리하여 이들 새로운 新興사대부들의 견해와 요구에 따라 全國 內陸地方 곳곳에 가마가 설치되는 전환의 모습이 전개된다.

一四世紀末 一五世紀初인 麗末鮮初의 象嵌靑磁의 窯址로 알려진 例를 들어 보면¹⁵ 京畿道の 廣州 陶水里, 雙東里 窯址, 서울 牛耳洞 窯址, 忠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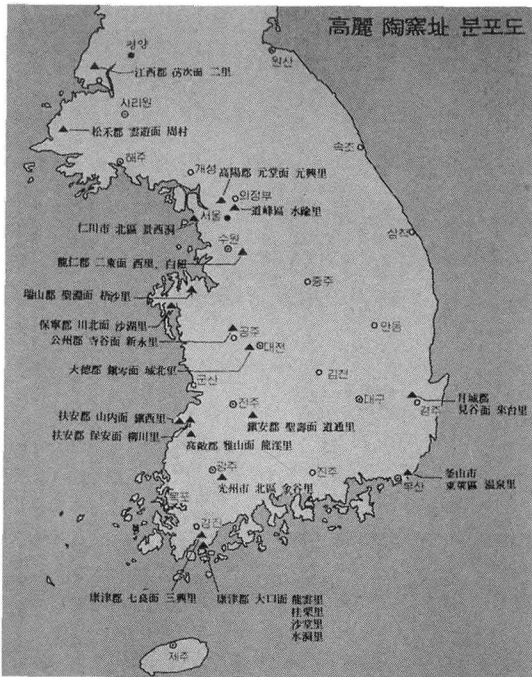
靑陽의 天庄里 窯址, 公州 佳山里 窯址, 天原 寶山院里 窯址 慶北 高靈의 箕山洞 窯址, 月城 南沙里 窯址, 尙州 於山里 窯址 慶南 山淸 長川里 窯址, 晉陽 水谷里 窯址, 泗川 龜岩里 窯址, 全北의 扶安 牛東里 窯址, 莞州 龍岩里 窯址, 全南 光州市 忠孝洞 窯址, 光山 雲水里 窯址, 羅州 雲峰里 窯址 등을 들 수 있다.

高麗時代 陶磁 中心地인 康津, 扶安 窯 대신 全國 내륙지방에 수많은 가마가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의 기반이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 一四二四~三二년에 조사되어 世宗實錄地理志에 수록된 三二四개 所에 달하는 陶磁所의 가마들이 엮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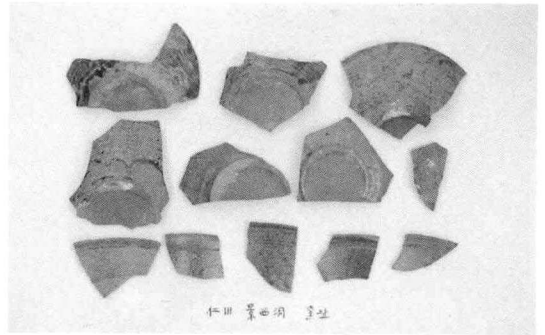
따라서 一四世紀後半은 혼란과 변화의 시기로 陶磁에 있어 實生活化가 촉진된 새로운 전환의 시기였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도자기 양상은 곧 이른 朝鮮時代 陶磁의 모체가 되었던 것이다.

[註]

- ① 崔淳雨, 「仁川市景西洞 靑磁窯址發掘調査概要」一九六六, 「考古美術」六 一六 考古美術同人會.
- ②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一九四四, pp. 211~212 清閑舍.
- ③ 金載悅, 「龍仁 高麗白磁窯址發掘報告」一九八五, 略報.
- ④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一九四四, p. 176, 一九四四.
- ⑤ 鄭明鎬·尹龍二, 「高敞雅山湄水沒地區發掘調査報告書」pp. 157~167,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 ⑥ 註②의 pp. 177~197, 참조.
- ⑦ 註②의 pp. 140~147, 참조.
- ⑧ 崔淳雨, 「韓國靑磁窯址」pp. 118~176, 사진 참조. 一九八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⑨ 註②의 pp. 156~168.
- ⑩ 金得豊, 「全南 海南郡山二面珍山里靑磁窯址調査報告」①~⑤ 一九八三, 박물관신문 一四四~一四八號. 國立中央博物館.
- ⑪ 註②의 p. 211, 참조.
- ⑫ 吉岡完祐, 「高麗靑磁의 發生에 關한 研究」一九七九, 崇田大學校博物館.
- ⑬ 鄭良謨, 「靑磁象嵌發生의 側面的 考察」p. 196~197, 「國寶」三, 〈靑磁〉, 土器, 一九八三, 藝耕産業社.
- ⑭ 崔淳雨, 「高麗陶磁의 編年」pp. 131~134, 一九七八, 「世界陶磁全集」一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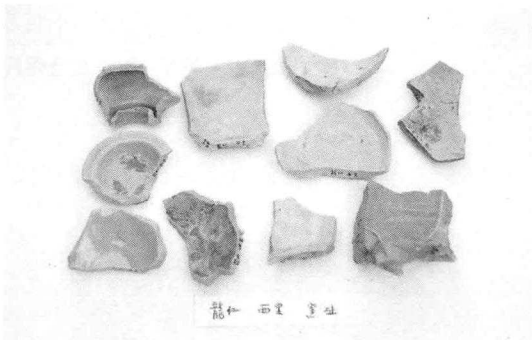
(圖 1) 高麗青磁陶窯址 分布圖



(圖 2) 仁川 景西洞 窯址 出土陶片



(圖 3) 高陽 之興里 窯址 出土陶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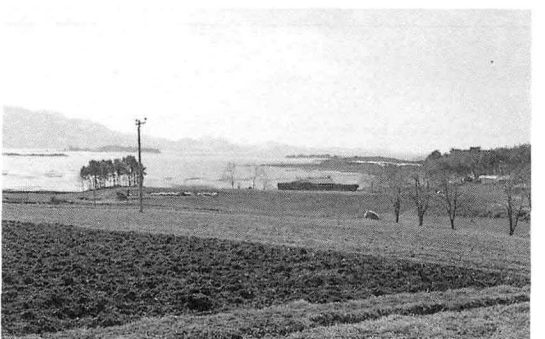
(圖 4) 龍仁 西里 窯址 出土陶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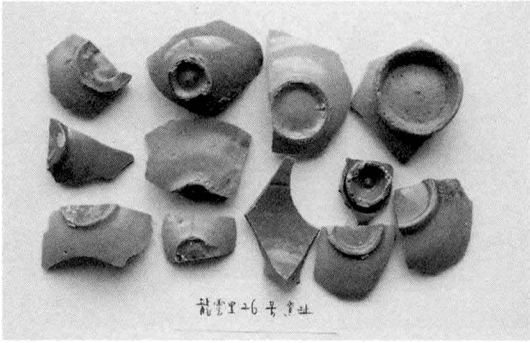
(圖 5) 釜山 德浦里 窯址 出土陶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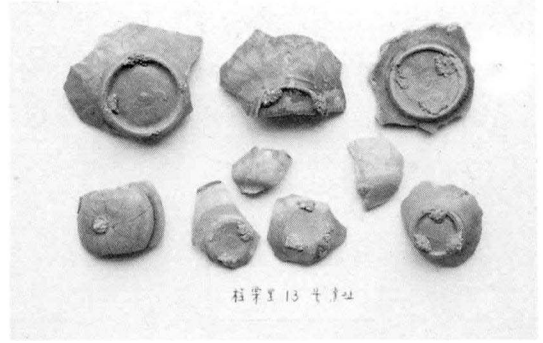
(圖 6) 鎮安 道通里 窯址 出土陶片



(圖 7) 扶安 鎮西里 窯址 全景



(圖8) 康津 龍雲里 窯址 出土 陶片



(圖9) 康津 桂栗里 窯址 出土 陶片



(圖10) 康津 沙堂里 窯址 出土陶片



(圖11) 康津 三興理 窯址 出土陶片



(圖12) 海南 珍山里 窯址 全景



(圖13) 海南 珍山里 窯址 出土陶片